

▶ 인쇄하기

강북구,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 참여자 모집

오는 31일까지 모집...2월 12일~4월 16일 10주 과정

2025.01.21 07:43 입력

서울 강북문화재단이 오는 31일까지 강북구민 대상으로 '2025년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하우스어서’란 공연장의 관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 객석 안내, 입장권 수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즉 공연장 안내 도우미를 말한다.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은 2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주 과정으로, 공연장의 이해, 공연장 고객 응대 방법 및 현장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의 하우스어서로 참여해 강북구의 공연 문화를 이끌어갈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강북문화재단은 지난해 강북문화대학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그림책 예술교육 전문가 심화 과정’과 ‘도슨트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으며, 교육 이수자들은 우이천 등축제, 강북Festa 등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의 도슨트 및

지역활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도슨트 전문가 과정'은 도슨트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내 학교 전시회에서 지역활동가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우스어썬 전문가 과정'은 공연 예술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강북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북구 소재 학교 재학생이나 사업장 종사자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양식은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송희 기자 it8677@naver.com

[인쇄하기](#) [창닫기](#)